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2. 18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테러경보수준 '한 단계(심각→상당함)' 하향
 - 2.9 「파텔」 英 내무장관은 지난해 11월 리버풀 택시 폭탄 테러 이후 3개월만에 합동테러분석센터(JTAC)가 전국 테러 위협 수준을 '심각(severe)'에서 '상당함(substantial)'으로 한 단계 하향했다고 발표
 - * 위급(critical) ⇒심각(severe) ⇒상당함(substantial) ⇒보통(moderate) ⇒낮음(low)
- 佛, 자동차 경주대회 폭발차량에서 사제폭발물 흔적 발견
 - 2.11 언론은 프랑스 정보·수사당국이 작년 12월 다카르랠리(오프로드 자동차 경주대회) 참가 중 폭발(부상 1)한 자국팀 자동차에서 사제폭발물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
 - * 다리 수술을 받은 부상자는 아직 입원 중이며, 조만간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미주

- 美 부통령 남편, 흑인학교 방문 중 '테러 위협'으로 대피
 - 2.9 「카멀라 해리스」 美 부통령 남편(더글라스 엠호프)이 '흑인 역사의 달' 기념행사를 위해 워싱턴D.C 던바 고등학교 방문 중 폭탄 테러 위협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백악관 비밀경호국(SS)의 안내를 받고 긴급 대피
 - * 던바고는 1870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흑인 고등학교(학생 94%가 흑인)
- 美, 동결 아프간 자산 9·11테러 희생자 유족 배상금으로 사용
 - 2.11 「바이든」 美 대통령은 연방준비은행에 동결된 아프간 정부 자금 70억달러(약8조4천억원)의 각각 절반씩을 9·11테러 희생자 유족 배상금과 아프간 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
 - * 탈레반은 '아프간 자산을 훔치고 압류하는 것은 최하 수준의 도덕적 부패'라고 비난

- 캐나다, 反백신 극우세력 결집 조짐에 「비상사태법」 발동
 - 2.15 캐나다 정부는 '加-美 이동시 코로나19 접종증명서 제출 의무화'에 대한 트럭 기사들의 반대시위가 장기화되고 극우세력 결집 가능성까지 예상되자 「비상사태법」을 '88년 제정 이후 최초 발동
 - * '비상사태법' 발동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 권한을 일시 제한 가능하며, 강제수단으로 시위대 해산·트럭 견인·트럭기사 은행계좌 동결 등 30일간 강경 제재 가능

아 · 태평양

- 정부, 우크라이나 '여행금지' 여행경보 발령
 - 2.13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 우려로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이 심화되자, 해당국 쏘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고 현지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철수를 권고

(1단계) **여행유의** : (여행예정자·체류자)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·대비
 (2단계) **여행자제** : (여행예정자) 불필요한 여행자제 / (체류자) 신변안전 특별유의
 (3단계) **출국권고** : (여행예정자) 여행 취소·연기 / (체류자)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
 (4단계) **여행금지** : (여행예정자) 여행 금지준수 / (체류자) 즉시 대피·철수

중 동

- 이스라엘 보안군,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3명 사살
 - 2.9 이스라엘 보안군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나블루스에서 유대인 정착촌 주민 총격 살해* 용의자 체포 과정 중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연계 무장조직 '알 아크사 순교자 여단' 소속 무장대원 3명 사살
 - * 지난해 12월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인근에서 20대의 이스라엘 국적 유대교 신학생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총격에 의해 사망
- 사우디 연합軍, 후티 叛軍 장악 예멘 수도 공습
 - 2.13 사우디국영 TV는 자국 주축의 연합軍이 후티 叛軍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의 정부기관과 민간인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공습을 실시, 叛軍의 드론 조종 통신시스템 등을 파괴했다고 보도
 - * 叛軍 운영 방송매체는 연합軍의 공격사실을 보도했으나 세부 피해 현황은 未공개

파키스탄 퀘타市 하자라族 집단거주지 폭탄 테러

- '13.2.16.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의 州都 퀘타 內 하자라族* 집단 거주지 소재 청과 市場에서 원격조종 폭탄이 폭발, 91명 사망·190명 부상의 인명피해 발생
 - * 몽골 내지 튀르크계 후손으로 추정되며, 다수가 시아파로 주요 거주지(이란·파키스탄·아프간)에서 인종·종교적 차이로 인해 빈번히 박해를 받고 있는 소수민족
- 테러범들은 약 70~80kg의 폭약을 물탱크에 은닉해 트랙터에 탑재 후 원격으로 폭발시켜 대규모 인명피해 유도
 - * 한편, 시장 內 건물들이 同 폭발로 파괴, 붕괴되며 추가 인명피해까지 발생
- 사건 직후, 알카에다 연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'라쉬카르 에 장비(LeJ)'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
- 파키스탄 「자르다리」 대통령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테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할 것임을 공언하였으며, 「마그시」 발루치스탄州 주지사는 더 나아가 강력한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를 촉구
- 한편, 「반기문」 UN 사무총장 역시 이번 사건을 비난하며 파키스탄 정부와 국민의 자국 內 종교적 소수민족 보호 의무를 재차 강조
- 이런 가운데, 파키스탄 정부는 3일 후인 2.19. 퀘타 일대에서 색출 작전을 전개, 테러 주동자 4명을 사살하는 한편, 170명의 연계자를 체포

테러 상식

< 라쉬카르 에 장비(LeJ, Lashkar-e-Jhangvi) >

- (목 표) 파키스탄 內 샤리아法에 근거한 수니파 이슬람국가 건설('96.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3.3), 미국('03.1), 캐나다('01.8)
- (조직규모) 약 300명 이하(美 국무부 추정)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, 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), 파키스탄 탈레반(TTP) 등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(펀자브·발루치스탄州, 신드州 카라치) 및 인도
- (활동수법) 시아파 및 기독교도 대상 학살, 암살, 납치 등
- (주요테러) ① '14.1 발루치스탄州 버스 대상 폭탄테러(사망 24, 부상 40)
 ② '15.8 펀자브州 내무장관 대상 자폭테러(사망 16, 부상 22)